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더치브로스의 성공에서 배우는 교회의 길

아날로그 환대로의 회귀하는 MZ 세대

최근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더치브로스(Dutch Bros)가 글로벌 브랜드 스타벅스의 매장당 평균 매출을 따라잡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치브로스는 1992년 오리건 주 그랜즈 패스에서 네덜란드계 형제가 설립했으며, 30여 년 만에 미국 내 982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성장세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30~50퍼센트 넘게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30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더치브로스는 특히 MZ 세대, 그중에서도 10대, 20대 고객층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 물론 글로벌 거대 기업인 스타벅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장 수나 총매출에서 차이가 크지만, 더치브로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히 스타벅스를 뛰어넘은 매장당 매출 때문만이 아니다. 더치브로스만의 독특한 브랜드 전략과 차별화된 마케팅 방식이야말로 그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10대, 20대 고객층이 오히려 더치브로스의 독특한 기업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치브로스는 어떻게 이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들의 영업 전략에는 오늘날 교회가 귀담아 들어 봐야 할 내용이 있다.

더치브로스의 마케팅 전략
오리건 주립대학의 웬하오



쑤(Wenhao Xu) 교수는 더치브로스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을 “한 번에 한 잔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One cup at a time, to make a massive difference)”라는 사명 선언문에서 찾는다. 미국인의 70퍼센트는 매주 커피를 마시고, 62퍼센트는 매일 커피를 소비하며, 하루 평균 석 잔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커피는 미국인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음료이지만, 더치브로스는 기존의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방식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들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잔의 커피에 정성을 다하는 ‘비효율적인’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MZ 세대에게 폭발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치브로스가 MZ 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자주 언급된다. 친환경적인 경영과 음료 제작,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 취약 계층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 실천이 그 셋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더치브로스의 ‘인격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응대 문화’를 꼽는다.

손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환대’

더치브로스는 이러한 영업 전략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비밀 메뉴(Secret Menu)’이다. 손님이 특별한 레시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다시 방문하면 그 고객의 이름이 적힌 컵과 함께 같은 음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덕분에 더치브로스의 고객 충성도가 다른 커피 브랜드보다 높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타사 브랜드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더치브로스의 진짜 강점은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문화에 있다.

〈9면으로 계속〉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와 성경 기반 TV 시리즈의 질적 향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다

홍보 담당자들이 신앙 기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보내올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곤 했다. 거의 항상 이 장르의 명성—저예산, 유치한 연출, 설교조 대사—이런 것들이 사실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장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단순히 형편없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칭찬할 만한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의 존 어윈(Jon Erwin)은 신앙 기반 영화와 TV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끄는 인물 중 하나다. 이 흐름은 그의 형제 앤드류 어윈(Andrew Erwin),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의 존 건

(Jon Gunn), 그리고 *더 초즌(The Chosen)*의 댈러스 켄킨스(Dallas Jenkins) 등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윈이 새롭게 설립한 원더 프로젝트(Wonder Project) 스튜디오가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에서 다크를 주제로 한 시리즈로 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수십 년간 쌓인 낮은 기대감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아마존이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Rings of Power) 같은 스펙터클을 성경 이야기에도 적용해 버리는 건 아닐까? 어윈의 스토리텔링이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식(formula) 속에 묻혀버리는 않을까? 이야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4면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8면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한글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Love 사모

부르심에 순종하여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모님들을 응원하며 이자리에 초대합니다.

기간 : 2025년 10월 20일(월) ~ 2025년 10월 22일(수)
장소 : Jama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등록 마감 : 2025년 3월 31일 Zelle ID : 512-571-0107 Venmo ID : Sangmi-0416
등록비 : \$100(참석시 전액 환불)
혜택 : 항공편 이용 타주 거주자 \$100 지원
대상 : 45세 ~ 60세 담임 목사 아내(선착순 40명)

주최 오스틴 주님의교회(TX) • 문의 허양희 사모 512-590-0591 • 후원 Jama

주님의교회
LORD'S CHURCH OF AUSTIN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와 성경 기반 TV 시리즈의 질적 향상

몇 가지 아쉬운 점

(1면에서 계속)

성경 속 가장 세익스피어적인 드라마만 강조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House of David) 시즌 1의 8개 에피소드를 모두 미리 본 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시리즈는 기대 이상이였다.

강점이면서도 동시에 약점

*더 초즌(The Chosen)*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도 마음에 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더 초즌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이유로 이 작품도 싫어할 수 있다.

두 작품의 강점은 다중 시즌 형식의 TV 시리즈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성경 속 인물들은 단순한 평면적 캐릭터가 아니라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 아마존이 최근 더 초즌의 새 시즌 독점 스트리밍 권리를 확보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영화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다중 시즌 포맷이 성경 이야기를 보다 깊고 넓게 펼쳐는 데 적합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은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한다. 몇 구절만 언급된 성경 속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생생하고 공감 가는 캐릭터로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창작자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게 채울 수 있을까?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어원의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는 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야기의 초점

시즌 1은 다윗(마이클 이스칸더, Michael Iskander)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사울 왕(알리 술리만, Ali Suliman)의 궁정 음악가로 성장하고, 결국 골리앗(마틴 포드, Martyn Ford)과 맞서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사자를 물리치는 장면이나 선지자 사무엘(스티븐 랭, Stephen Lang)이 그를 선택하고 기쁨 부어 세우는 장면과 같은 상징적인 순간들이 등장한다. 사무엘은 이 시리즈의 영적 중심이자 핵심 인물이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는 사울에게 불순종에 대한 책망의 말을 전하는 한편(사무엘상 15장), 다윗에게는 격려의 예언을 전한다. 그리고 랭의 연기는 그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든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등장인물들과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할 것을 촉구한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는 등장인물들의 상대적 영웅성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영웅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경외심과 겸손을 지니며,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한다. 반면, 악역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는 자들이다.

초반부 한 장면이 이러한 주제를 잘 보여준다.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후, 사울은 한 산 위에 기념비를 세운다. 그는 이를 "우리 집의 위대함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장면에 함께하며, 아버지를 바로잡는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우리의 위대함이 곧 하나님의 위대함이다"라고 답한다. 이는 사울의 미온적인 신앙과 그를 몰락으로 이끄는 교만을 보여주는 대사다.

배우들의 열연

이스라엘 출신 배우 알리 술리만(Ali Suliman)은 사울 왕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한다. 그는 왕위를 지키려는 갈등과 정신적 불안정함을 복합적이고도 폭발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도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기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마이클 이스칸더(Michael Iskander)가 연기하는 다윗에 대해서는 처음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집트 출신의 연극 배우로, 첫 주요 스크린 배역을 맡은 그는 초반에는 너무 왜소하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듯했다. 시인으로서의 설득력이 있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자를 무찌르는 전사로서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성경 속 사무엘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호와와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삼상 16:7). 다윗은 겉으로 보기엔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의 등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윗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칸더의 연기 중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다윗의 음악 장면이다. 그는 수금(lyre)을 연주하며 히브리어로 기도와 시편을 부르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특히 모세의 노래(신명기 32:1-43)를 사울과 그의 가족 앞에서 부르는 장면은 감동을 자아낸다. 이스칸더는 실제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활용하여 연기했으며, 그 효과는 매우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전체적으로 시즌 1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몇몇 에피소드는 다소 기복이 있다. 이는 아마도 각본을 집필한 작가들이 성경 지식과 신앙적 헌신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몇몇 장면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는 요소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다윗과 미갈(Indy Lewis) 사이의 로맨스는 때때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는 할리우드 스타일로 묘사되며, 현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고대 근동의 배경에 어울리지 않게 스며들기도 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연설은 마치 현대 미국 대학 졸업식 연설처럼 들린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도 네 운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은 네 것이다. 꼭 붙잡아라." 또한, 미갈이 "다윗, 욕망과 의무는 다르잖아요. 내 미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자, 다윗이 "그건 내가 그렇게 믿을 때만 그래."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다윗의 성장 서사를 "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라는 현대적 자기계발 서사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해야 할 성경 이야기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다. 가끔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다

다행히도, 이러한 장면들은 시리즈 전체에서 예외적인 부분일 뿐이며,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과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사무엘이 등장할 때마다, 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수 5:13-15)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은 단순한 응원자나 축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신발을 벗고 서야 할 거룩한 분"이심을 강조한다. 시리즈 전반에 걸쳐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준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라는 것이다. 어떤 가문이든—사울의 가문, 다윗의 가문, 그리고 당신과 나의 가정—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15)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의 작가들과 제작진이 시즌 2에서도 같은 대답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by Brett McCracken, TGC

목회단상

‘무엇으로부터 삶에 동기 부여를 받는가?’



한일철 목사
(그린소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NC)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꿈도 없이 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희망을 가질 동기부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 젊은이들 중에 한국에 제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가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록전시관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학 성적표가 붙어 있는데, 4년 동안 A는 두 개밖에 없고 온통 B, C, D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곳에 방문했던 젊은 청년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큰 희망을 갖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니 기록

전시관을 방문한 젊은 청년들에게는 '내가 못하게 뭐있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삶에 희망의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때론 다른 이들의 실패를 통한 성공이 나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주어 세상을 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난 나의 스토리가 다른 이들에게 삶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징계로 하나님은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아닌 절망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피곤하며 곤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회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비교하여 사용하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곤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다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다음 구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달리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곤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사 40: 29, 30).

사람들은 저마다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날지 못하고 죽어가는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어느날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농약에 중독되어 날지도 못하던 독수리 네 마리를 충남 서산에서 발견한 후, 치료하고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뉴스였습니다. 구조될 때에 독수리들은 날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독수리들을 구조한 후 치료하여 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치료받은 독수리들을 작은 케이지에 넣고 들판으로 가서 케이지의 문을 여는 순간 독수리들이 뛰어나와 곧장 큰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분명 그렇게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인데 왜 여태껏 날지 못했을까요?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하늘의 창공을 날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행하지 못했던 네 마리의 독수리와 같은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그 독수리들처럼 날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중에는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일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마리의 독수리들은 원래 창공을 훨훨 날던 독수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약에 중독되어 큰 날개를 접고 힘없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독수리들이 예전에 날지 못했던 독수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우리는 결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날개를 펴서 힘차게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에 동기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anusa1962@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39th Anniversary

Midwest University(제임스 송, 총장/설립자)는 1986년 미국 중부 St. Louis에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교육부 (USDE), 대학학력인준 기관인 CHEA와 ABHE의 인준을 받은 미국정규 종합대학교입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경영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적당함의 미학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레드 불(Red Bull), 몬스터에너지(Monster Energy), 박카스 그리고 비타 500은 고농축 카페인이 포함된 대표적인 에너지 음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커피, 녹차, 핫초콜릿에도 생각보다 많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 다. 시커멓고 쓴 그 음료를, 더구나 많이 마시면 잠도 못 자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돈을 주고 샀겠습니까. 하지만 학기말 시험이 다가오면 집중력을 높이고 밤을 새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커피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늘 피곤해서인지 커피를 마셔도 침대에 눕기만 하면 곧바로 잠이 듭니다. 하지만 심장 전문의는 카페인 과다

섭취가 혈압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커피를 줄이라고 권장합니다. 그래도 커피를 좋아하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저는 커피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1-2잔으로 섭취량을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카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SNS로 인한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여기서 ‘카페인’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의미합니다. 2024년 4월 머니투데이는 SNS사용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밝혔으며,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 연구팀은 “페이스북 사용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페인 음료나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증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SNS의 과도한 사용도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만 접속하지 않아도 불안해지고, 자기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으면 초조해지며 타인의 화려한 게시물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 초조, 박탈감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도 SNS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피해야 합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적당함’입니다. 카페인을 적당히 섭취하면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

는데 도움을 줍니다. SNS도 적당히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커피를 하루 1-3잔 정도로 조절할 것을 권장합니다. SNS 사용시간을 하루 30분만 줄여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미디어 금식’을 시도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 카페인도 SNS도 ‘적당히’ 조절하며 즐기는 것이 어떨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각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전통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말과 교훈은 모두 비슷하다는 사실을 평생 여러 문화권의 문학을 연구했던 앤서니 드 멜로(Anthony de Mello)가 발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야기의 기본 구조나 핵심 메시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은 이러한 이야기기를 ‘원형(archetypal)’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원형적인 이야기에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일반은총(Common Grace)’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인이 가지고 있던 말 한 마리로 밭을 갈고, 수레를 끌고, 타고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 밭에 쏘여 놀라 도망쳐 버렸습니다. 노인은 말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온 마을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말을 잃다니 정말 불운한 일이군요." 하지만 노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불운인지, 행운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말이 산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야생마 12마리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노인에게 마을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큰 행운이네요!" 하지만 노인은 또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노인의 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생마들을 길들여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길들이는 과정에서 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세 군데나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이 크게 다쳤다니 안타깝군요. 참 불운한 일이네요." 하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불운인지, 행운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두 주 후, 중국의 두 지역 간에 치열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군대가 마을을 지나가며 50세 이하의 건강한 남자들을 모두 징집해 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징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로 우리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사자성어로 익숙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과 같다고 함

그 배경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유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빌레몬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

흑하고 무자비한 처벌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자가 처형도 노예를 처벌하기 위해 나온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헛웃처럼 벗어 던지고 무시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의 경험이란,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바울이 함께 갈 수 없었기에, 그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빌레몬에게 관대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돌아온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나 도둑으로 보지 말고, 그리

국 그 전개 과정은 중국의 고전적인 '새옹지마' 이야기와 같은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금술사인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일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며, 오네시모의 이야기에 서도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던 일을 다시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신약성경의 이 편지에는 아름다운 후속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바울에게 돌

신약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들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주교였던 오네시모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약성경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사이에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레몬서가 포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네시모가 어떻게 말하는 듯합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악하고 비열한 일을 저질렀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었는지요." 만약 오네시모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만약'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인지 행운인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빌레몬서 1:1-25



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닌 만큼, 우리는 어떤 일이 궁극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과 신비에 대한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며, 우리의 보는 것은 마치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전 13:12)고 했는데 '새옹지마' 이야기의 교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특별은총'의 은혜로 성경의 이야기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과 악의 본질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며, 마치 '영금술사'처럼 겉으로 보기에 는 절망적이고 나쁜 일조차도 결국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길을 잃은 말도, 부러진 다리도 결국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빌레몬서도 같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빌레몬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해 작성된 성경에 포함된 유일한 개인 서신서입니다.

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한밤중에 로마로 도망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나이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항상 그랬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불운의 바울과 죄를 짓고 숨어사는 비운의 젊은 노예 오네시모의 만남을 통해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유익한'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네시모의 삶에 들어가시니 "오네시모는 이름만 유익한 자였으나, (그래서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본래의 의미대로 진정으로 유익한 사람"(11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 인해 오네시모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과거를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는 다시 돌아가 빌레몬 앞에 서야 한다. 그의 용서를 구하고,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망친 노예에게 가

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으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라는 요구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전하며, 빌레몬에게 평생 익숙해 있던 문화적 관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 가는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제도를 끔찍한 악으로 여기며 판단하지만, 20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거대한 실수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회심은 끊임없이 배우고, 다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기존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바울의 빌레몬서는 결국 노예제도의 굳건한 로마제국의 바위를 갈라지게 만든 작은 씨앗과도 같은 편지였다"라고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은 노예를 단순한 재산이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바울은 주 안에서 친구가 된 빌레몬에게 간청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빌레몬서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

려보냈다고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듯이, 오네시모는 이제 그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 편지가 쓰인 지 50년 후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의 주교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주교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한때 돈을 훔쳐 로마의 군중 속으로 숨어든 노예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와 많은 사람의 자비를 통해 초대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도망쳤다"며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 지혜로운 노인이 "불행인지, 행운인지 누가 알겠소?"라고 했던 것처럼, 노예가 도망쳤다가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히 영두 마리 말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품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편지들이 처음으로 모아지고 배포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의 서신들이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불행인지, 행운인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보편적인 주제가 여기서도 반복된다고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삶의 사건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 순간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노인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인과 다르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 보이는 일یدن, 나빠 보이는 일یدن,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망과 믿음, 그리고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선부터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schang@bostonkorea.org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정부가 인정하는 성별은 오직 2개” 라고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엄청난 영향력은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 하 -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확정 치료 (GENDER-AFFIRMING CARE)"라는 의료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신체를 악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런 시술은 "아동학대-CHILD ABUSE!"라고 하며 1월 28일 자 백악관 공식 서문을 통해 19세 미만의 "젠더 확정 치료(GENDER AFFIRMING)"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과 모든 성전환 시술 및 의료처방을 제한/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호 3가지 초간단 REVIEW

- "PUBERTY BLOCKER 사춘기 차단제"로 불리는 약물 금지!
- 모든 성전환 호르몬 치료금지
- 신체 부위 바꾸는 모든 끔찍한 시술 금지: 예) 성기나 가슴 제거 등등.
- 연방 연구 및 교육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중단 조치.
-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정책 폐기.
-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내부 고발하는 직원들 보호 정책 강화.
- 미군 의료보험 및 연방 공무원 건강 보험에서도 성전환 치료 재정지원 금지!

4. 법무부(DOJ)에도 내려진 지침 몇가지:

- 여성 생식기 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 FGM)을 금지하는 법률을 엄격히 집행.
- 성전환 치료의 장기적인 치료의 장기적 부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보내는 잘못된 정보, 홍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법적 조치.
-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허용하는 '성전환 보호 주 (SANCTUARY STATES)'에 대한 엄중한 조사 착수 시행.

5.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도 드디어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호르몬 치료 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사춘기 차단제를 맞는 미성년자들은: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기능 저하, 불임(성전환 호르몬 치료와 병행할 경우)같은 부작용을 초래.
-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맞는 미성년자들은 :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혈전,

암 발병 위험 증가가 심하다고 경고함.

미국에 성별 정책이 상식적으로 회복되자 생겨나는 현상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중.

미국 내 다음과 같은 26개 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주리,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인디애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다호, 몬테나, 유타, 와이오밍, 애리조나, 뉴햄프셔

기도 제목인 주들: GENDER-AFFIRMING SANCTUARY STATE이기를 고수하는 12 주 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스, 매사추사츠,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 워싱턴.

"GENDER-AFFIRMING SANCTUARY STATE"이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강력히 추진된 정책 아래 만들어진 STATES들로서,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동성애/트랜스젠더들이 원하면, 위에서 언급된 모든 위험한 치료방법들을 허용하며,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주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라이프스타일들을 다 보호받게 합니다. 당연히, 이런 치료방법에 대한 처벌은 없죠. 한마디로, 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새롭게 통과된 미연방 법률을 어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여러 설문조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적인 "성별은 두 개뿐이다"라는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최근에는 친동성애/트랜스젠더 운동을 지지하던 뉴욕타임스에서까지도 '트럼프가 왜 47대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가 여자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보여준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128명 중 79%

는 자신을 스스로 여성이라고 정체화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여자 스포츠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성향이라고 밝힌 1,025명 중 67%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여성과 경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1월 대선 직후, 미국의 입법을 우려하는 여성 행동 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출구 조사 (NATIONAL EXIT POLL)에 따르면 유권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응했고, 그중 6%는 성별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으며, 44%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정확한 의료 데이터와 사실적 근거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인 자스민 크로켓 하원의원이 수요일 X 게시물을 통해 다음처럼 글을 올린 후 많은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스포츠 활동을 금지' 시키고- '타이틀 9에서 소녀 운동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했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여성 평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죠.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금지 정책은 여성을 절대 보호하지 못한다"라고요.

하원의원의 왜곡된 정보의 대통령 비판 글은 다른 X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중 몇 개글만 나뉘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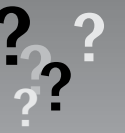
코멘트 1: "크로켓 의원님, 당신이 쓴 내용 중 사실인 것이 하나도 없군요. 대통령은 '트랜스젠더들이 스포츠를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어난 성별과 일치하는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트랜스젠더들은 그들의 리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남성이 여성인 척하면서 여성 스포츠를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이기에, 일명 '여성 스포츠 보호' 정책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하원의원은 왜 나보다 모르시나요?"

코멘트 2: "크로켓 의원은 왜 여성의 권리와 안전보다 일부 생물학적 남성의 감정에 더 신경 쓰나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시되고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여성 혐오라는 것 모르시나요?"

코멘트 3: "타이틀 IX 보조금은 삭감되지 않았어요. 남성이 스스로 트랜스 여자라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삭제 된거라고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IT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가 죽은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십시오.

- 오렌지 카운티의 모 청년부 회원이

스티브 잡스와 기독교의 복음

A: 21세기 정보기술 즉 IT 혁명의 아이콘 역할을 한 스티브 잡스가 채장암으로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1976년 개인용 컴퓨터를 상용화시키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들을 출시하여 디지털 시대에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물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이제 전화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모든 컴퓨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이메일을 체크하고 보내고 상품을 오더하고 설교자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은 언제든지 교회의 웹사이트와 교회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IT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가 점령지의 영토에 최첨단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세계에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만든 애플 제품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저 땅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불행히도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잡스를 통한 그의 IT 업적을 통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2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값비싼 물건일 때 그는 앞으로 냉장고처럼 많이 팔리리라 확신하고는 APPLE 2로 PC 대중화시대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스의 하는 말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의 미래를 바라보는 천재성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게 적중을 했습니다.

2.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라(Don't be afraid of failure)

그는 늘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진짜 예술가이다"라며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우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애플에서 쫓겨나는 수도와 비참함을 겪었으나 애플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13년 만에 CEO로 다시 복귀했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애플을 세계 최대의 IT 업체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를 딛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로 신념으로 큰 일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빌립보서 4: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윤철

telcusa@yahoo.com / www.lbcpc.com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Tel: (213) 381-2202, www.mpcja.org
170 Birmit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Tel: (949) 854-4010 / bibleh@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Tel: (213) 388-1927 / www.wmca.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셀비치 사랑교회 (See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Tel: (310) 749-4756
셀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Tel: (714) 446-6200, www.gracelife.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Tel: 213-383-9136, pyou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마치 쇼핑하듯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더 좋은 시설, 더 재미있고 짧은 설교, 더 친절한 환영팀, 더 세련된 찬양팀을 찾으며 교회를 선택한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고전 12:27). 즉, 교회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비자가 아

니라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종종 성장과

성공을 숫자로 측정하려 한다. 교인의 수가 많고, 건물이 크며, 재정이 풍부하면 성공한 교회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다(눅 15:4). 만약 교회의 크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복음이 희석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위험이 크다.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1,000명이 모이는 한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의 대사명을 수행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앞드려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회개의 마음을 잃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이를 경고하셨다(사 1:11-17). 오늘날 교회도 외형적 성장에 만족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복음의 본질을 불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복음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쁜 소식이다. 이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소비지향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곳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최근 작은 교회 운동(Small Church Movement)이 주목받고 있다. 이 운동은 교회의 구

모가 아닌 영혼의 변화와 제자도를 강조하는 흐름이다. 작은 교회들은 규모는 작아도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초대교회도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며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였다(행 2:46-47). 중요한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느냐다. 우리는 교회를 쇼핑하듯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헌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영혼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운동 같은 흐름을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데 더욱 전투적인 교회들로 세워지길 소망한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펠라니아 “딥페이크 음벌하라” ... 백악관 복귀 후 첫 대외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펠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복귀 이후 첫 대외 행보로 온라인상의 성적 가해에 대응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펠라니아 여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테이크잇다운(강력 단속)’ 법안 좌담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오용의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우선시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공화)·에이미 클로버바(민주)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테이크잇다운 법안은 ‘딥페이크’ AI를 악용하거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온라인상의 성적 가해행위를 연방정부 차원의 범죄로 규정하고 사죄의 책임을 플랫폼 운영사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펠라니아 여사는 “비열하고 해로운 온라인상의 행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이는 우리의 책임인 동시에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펠라니아 여사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대외 공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안보 홀로서기’ 나선 유럽... “GDP 3% 이상 국방비 지출 필요”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방식에 대응해 방위비 인상 방안을 마련하며 ‘안보 홀로서기’에 나섰다.



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했던 기금 중 남아 있는 930억 유로(약 142조원)를 활용한 방위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6월 우크라이나 관련 긴급 정상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서 “엄청난 방위비 급증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평화는 힘으로만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기존에 녹색 성장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던 지역개발기금을 군사 투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정 준칙을 완화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안도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EU 재정 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국가부채의 경우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상들도 최근 2% 안팎에 불과한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추가 자금 수요는 향후 10년간 약 5000억 유로(약 766조원)로 추산된

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재 2.3% 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회원국들에 GDP의 3.7%까지 국방비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친러 정책에도 미국인 52% “우크라 지지” ... 러 지지는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인 52%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했다.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미국 CBS 뉴스와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과반수라고 전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지지는 37%였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44%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CBS 여론조사는 파행으로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직전인 2월 26~28일 실시됐다. 회담을 지켜보지 않았어도 미국인 다수는 이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6%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선호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11%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군사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1%가 ‘해야 한다’, 49%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해 대등했다. 다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해야 한다’(3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78%)고 보고 있다. 이 응답자들 가운데 31%는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답했고, 42%는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26%는 아직 말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에 계속 남아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8%가 남아야 한다고 답했다. 떠나야 한다는 응답은 22%였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67%는 동맹국들과 동등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7%는 세계 문제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단 한 명도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았다... 달라진 오스카 시상식

2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7회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아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3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레스타인 문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오스카 시상식은 정치적 발언으로 뜨거웠던 지난 몇 년과 달랐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며 “워싱턴은 먼 나라 같았다”고 보유했다. 이날 시상식 사회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은 오프닝 멘트에서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를 애기했을 뿐 정치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사회자인 지미 키멀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브루탈리스트’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애드리안 브로디는 이날 수상 연설에서 특정한 정치 상황을 거론하지 않은 채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포용적인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수 있다면 증오를 방지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믿는다”고 애기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었다. 편집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대릴 해나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란 표어를 말하고, 사회자 오브라이언이 작품상, 감독상 등 5관왕에 오른 ‘아노라’를 언급하며 “누군가가 강한 러시아인에 맞서는 장면을 마침내 본 미국인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애기한 것이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점령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파괴되는 과정을 그린 ‘노 아더 랜드’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받았다.

가디언은 올해 시상식 참가자들은 정치적 언급을 피했지만 후보에 오른 영화들은 정치를 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큐멘터리 영화 ‘노 아더 랜드’를 비롯해 이날 시상식의 주인공이었던 독립영화 ‘아노라’와 ‘브루탈리스트’ ‘리얼 페인’ 등은 전쟁과 이민, 홀로코스트, 성소수자 등을 다룬 작품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 신화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어프렌티스’도 후보작이었다.

中 ‘게임체인저’ 차세대 양자컴퓨터 1위도 노린다

중국은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컴퓨터에서도 1위를 노린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응용한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만년 넘게 걸리는 연산을 몇 분 내에 해낼 수 있는 미래형 첨단 컴퓨터다.

중국 스타트업 오리진퀀텀은 양자컴퓨터계의 ‘딥시크’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가 지난해 1월 출시한 양자컴퓨터 ‘오리진우궁’의 글로벌 방문자 수는 지난 14일 2000만명을 돌파했다.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의 손오공에서 이름을 따온 오리진우궁은 중국 독자 기술로 만든 72큐비트 규모의 초전도 양자컴퓨터다. 미국의 대표적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에서 올해 출시 예정인 64큐비트 양자컴퓨터보다 규모가 크다. 큐비트는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로 큐비트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오리진퀀텀은 오리진우궁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원격 이용 신청자를 받았는데 1년여간 총 139개국에서 접속이 이뤄졌다. 미국에서 접속이 가장 많았고 하버드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명문대학에서 신청한 건수만 5만여건이었다. 중국과기대는 지난해 12월 105큐비트 양자컴퓨터 ‘주쑹즈 3호’를 공개했다. 구글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72큐비트 ‘시커모어’의 성능을 뛰

어넘는다. 중국과학원은 같은 달 중국텔레콤양자그룹(CTQG), 중국과학원양자정보·양자과학기술혁신연구원, 쿼텀시텍과 공동 개발한 504큐비트 ‘헨엔-504’를 내놓고 세계 최고인 1121큐비트 규모의 IBM 양자컴퓨터 ‘콘도르’ 추격에 나섰다. 중국은 2006년 발표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 중장기 계획(2006~2020년)’에서 양자 기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선 양자 기술을 7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양자 기술에 투자한 자금 규모를 150억 달러(약 22조원)로 추산했다. 미국의 추정 투자 규모 38억 달러의 4배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3217건의 양자컴퓨터 특허를 확보했다. 미국의 2740건을 넘어 세계 1위다. 오리진퀀텀은 미국 IBM을 제치고 양자컴퓨터 특허 보유 세계 1위 기업으로 부상했다. ITIF는 “중국이 글로벌 양자 기술 경쟁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야망과 규모 면에서 다른 국가를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美 “우크라 군사 지원 중단” ... 여론이면 무기 고갈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 파행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을 명령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올해 여름이면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실질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나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는 물자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가 멈추게 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주문 중인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와 탄약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군사 원조를 재개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으로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많은 일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군사 장비의 약 55%를 자력으로 생산하거나 조달한다. 나머지 비중은 미국에서 20%, 유럽에서 25%를 각각 공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는 현재 약 30%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WSJ에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과 관련해 “올해 초 미국이 이미 선적한 탄약이 있고 여기에 유럽의 지원이 합쳐진다면 우크라이나의 포병 탄약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여름으로 접어들면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발한인장로교회)

용서의 달인(Master of Forgiveness)

용서(Forgiveness)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겨내신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고난을 이겨내신 영광일 뿐 아니라 원수를 용서한 용서의 영광입니다. 잘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미움은 관계에 모래나 재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꽃에 오염된 물을 붓듯이 상처에 미움이라는 오염된 물을 부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에 미움이란 오염된 물을 부으면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처가 치유됩니다. 깊은 상처는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특효약이 됩니다. 형제를 용서함에 어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용서의 달인 용서의 선수이십니다.

먼저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 있다(You Must Be Forgiven Before You Can Forgive).

용서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달인 용서의 선수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지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용서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신하가 임금님께 만달란트 빛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달란트를 달랠로 환산하면 120억 달러가 됩니다. 신하가 임금님께 만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천문학적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일만 달란트의 빚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탕감해 준 임금님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를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형수였다가 사면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용서하는 용서의 달인 용서의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People who Have Been Forgiven but Still Cannot Forgive)

탕감 받은 자중에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종이 임금 어전에서 물러 나와 거리를 건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금액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빚을 갚지 않은 동료의 목살을 움켜잡고 "어서 빚을 갚으라"(마 18:28)라고 호통을 칩니다. 빚진 친구는 오히려 간청하며 "곧 갚을 테니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마 18:29)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고발해서 구속시켜 버렸습니다(마 18:30).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백 데나리온의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처럼 실제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왕의 은혜로 순전히 공짜로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마 18:30)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Forgive Your Brother and Sister's Sins)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엄청난 큰 죄 사함받은 기쁨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탕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탕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게 잘못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탓할 마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존귀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해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손 내밀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배를수록 좋습니다. 용서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점점 용서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동안 용서의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용서의 기회가 있을 때 한시라도 빨리 용서를 빌고 용서하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용서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수많은 고통의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 먼저 종으로 팔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며 자기를 종으로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다는 차원을 넘어 그 형들의 장래까지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창 45:4-5절). 스테반이 원수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스테반의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행 7장).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고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친구

올해 첫 두 달은 옛 친구들과 예상하지 않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일월에는 대학교 친구 두 명이 한국에서 방문했다. 이제 은퇴도 했으니 놀러 오라는 내 말에 친구들이 먼 길을 했다. 공항 픽업부터 떠나는 날까지 열흘 넘게 풀 서비스를 하느라 몸은 조금 고단했으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함께 지내다 보니 친구들의 옛모습이 그대로 나와서 뜻밖했던 대학 시절로 마음이 돌아갔다. 그 중 한 친구는 대학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다. 한국에 갈 때 자주 만났기 때문에 친구의 삶을 대강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이 지내며 들려준 친구의 지나간 삶은 생각보다 더 어려움이 컸었다. 그 아픔을 잘 이겨낸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다른 한 친구는 세례를 받은 불교 신자다. 토요일 밤에 "나는 내일 교회 가는데 어떻게 할래?"라는 물음에 섣뜻 같이 가겠다고 했다. 목사님의 인사에 계속 합창으로 담례를 해서 웃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믿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의 말보다 삶이 더 주님을 드러낼 것이라는 부담도 있었다. 두 친구 다 남편이 없어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언제 또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잘 해주고 싶었다. 친구들이 한국으로 떠나면서 남긴 "한대와 배려가 고마웠다"는 글이 감사와 기쁨으로 남았다.

이월에는 고등학교 친구 둘과 일주일을 보냈다. 포틀랜드에 사는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였다. 남편이 떠나면 마음이 힘들 것 같다고 장례식 때 와서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다른 한 친구는 장례식 참석 차 한국에서부터 왔다. 며칠 간 비가 오락가락하는 포틀랜드의 날씨는 친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다. 비가 내렸지만, 아침마다 걷는 습관대로 친구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싸늘한 아침 공기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동네를 걷자니 집집마다 수선화, 붓꽃, 튤립 등 구근류 꽃들이 많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파랗게 돌아난 잎들이 꽃망울을 매달은 채 다가오는 봄을 알리고 있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 모를 작은 풀 꽃들, 마치 투명한 우리 꽃처럼 반짝이는 빗방울을 가지 끝에 달고 있는 작은 나무들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고 내게 말하고 있었다.

그 지역 바닷가에서 모터를 경영하는 친구의 지인이 하루 와서 쉬고 가라고 우리를 초청했다. 슬픔을 나누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깜짝 선물이었다. 숙소 앞에 한 없이 펼쳐진 밤바다를 보고 있는데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샌드파이퍼라는 이름의 작은 새들이 무리를 지어 해변을 이동하는 모습이였다. 종종 걸음을 걷듯이 포르르 포르르 원을 그리며 너무 귀여운 군무로 보여 주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조용히 방을 나서서 바다로 나갔다. 아침에 걷는 바다는 어제 밤 바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다. 밀려오는 파도는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과 모래 위에 새긴 글들을 다 지운 채 떠오르는 해와 함께 새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소중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서로의 모자람은 채워주고 싶고 서로의 다름도 곱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일 것이다. 어두운 밤 바닷가에서 군무를 연출한 샌드파이퍼처럼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종종걸음을 치며 때로는 날아오르며 기쁨과 고난이 섞인 삶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또한 밀려오는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 가듯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 후회와 자책도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친구들의 삶에 찾아온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밝은 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linda.pyun@itsla.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세백기도화: 오후 09:00 세백기도화: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문찬: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ki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어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nyc.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화: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 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화: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화: 오후 8:30 새벽기도: (매주 1주, 3주) Tel.(201)342-9194, sundog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세 백 기도: 오전 5:45 전교인복합선악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88, www.bayside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세백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che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 백 기도 화: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세 백 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백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송기도화: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화: 매월 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í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창립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화: 오전 5:40 Tel.(3277-1489, Fax: 3209-9343 Rue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강좌: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백기도화: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노빌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기적의 주인공”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30세에 ‘모빌 런치 서비스회사’를 세우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는데 바로 ‘던킨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 버그입니다. 그는 72세 생일축하연에서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나는 가난과 교육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기적을 이루게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요한복음 6장 벡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인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대표적인 기

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는 안드레의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벡세다 들녘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빌립을 불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하고 물으시니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열린 둘러보더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반개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은 바구니에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이 보리떡이었고 그 거친 보리떡을 먹을 때 목에 걸리지 않도록 반찬으로 옴사리온이란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 음식을 드리고자 할 때 안드레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도 그 환경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드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카니니(Toscanini)는 9세 때부터 첼로와 작곡 공부를 하였는데 20세가 되던 해에 리오데자네이로의 이탈리아 오페라단에 입단하여 첼로 연주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고도근시라서 자신의 악보를 모두 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의 악보까지 다 외워야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연주를 하루 앞둔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연주회는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해보라고 떠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나간 토스카니

니가 지휘봉을 잡고 천재적인 지휘를 하게 되었고 대단한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에서 일약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천재적인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도근시라는 아픈 가시를 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 아픔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아픈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songkpak@hotmail.com



남가주한인지도자 및 상공인 초청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남가주한인지도자 및 상공인 조찬기도회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네트워크의 기회 되길”

미주조선일보(대표 이기욱 장로)가 주최한 남가주한인지도자 및 상공인 조찬기도회가 28일(금) 오전 8시 옥스퍼드 팰리스호텔 세미나룸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기욱 대표는 “한인사회 경제가 어려운 이때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과 상공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돼 기도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건진호 목사(하튼교회) 기도,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설교,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 기도회로 진행됐다. 김준식牧사는 “준비된 그릇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요”(에레미야 9:23-24)의 제목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 학벌을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은 인애와 공평, 정직을 이 지구 역사에,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인애, 공평, 정직을 행하고 계시며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릇이 되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자”고 강권했다. 이어 민종기 목사의 인도로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안현숙 목사), 미국 한인사회를 위해(김영일 목사), 남가주한인상공인을 위해(김재권 장로), 조국대한민국을 위해(최학량 목사)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한편 이날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축사, 박형만 이사장(만회복지재단), 황선철 장로(CBMC 명예회장) 격려사에 이어 한기형목사(미주 CBS TV 대표)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순서를 통해 식사를 나누며 네트워킹을 위한 좌담의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주회 축이 기념품으로 준비한 스카프를 착용하고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성자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교회설립 5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 교회설립 5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세롭게 임직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교회설립 5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가 지난 2월28일(금) 오후 7시30분에 거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임직감사예배는 표상호 장로 기도와 연합성가대 찬양에 이어 진유철 목사가 ‘시작과 끝이 같아야 승리한다(로 1:17)’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진유철 목사는 “시작과 끝이 같은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교회에서 임직 받을 때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업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못 간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대적이 나타나고 불경기를 만나고 병들 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때가 와도, 주인을 바라보는 종이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로, 영적 루틴을 만들어 지켜야 한

다. 그 영적인 루틴의 핵심은 ‘God First’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도록 훈련할 때, 여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가난한 땅에 어떤 강한 부족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나성순복음교회는 미국에 있는 순복음교단의 장자 교회이다. 전 세계 선교지의 순복음교회와 장자 교회인 우리 교회가 영적인 좋은 루틴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 영적인 루틴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기를 소망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직식은 이선자 목사(서남부 지방회장)와 진유철 목사의 집례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약, 안수기도, 공포, 안수증 및 임직패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1명의 장로, 3명의 안수집사, 8명의 권사, 4명의 명예권사가 임직됐다. 이어 임현철 목사(순복음 북미총회 서남부지방회 직전회장)가 권면, 이선자 목사가 축사가 있었으며, 이날 임직 받은 배원준 장로가 임직자 대표로 인사한 뒤, 진유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인공지능에 관해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김병학 목사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김병학 목사의 인공지능 특강
“AI 기술, 목회와 선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김병학 목사(LCC 주님의교회)의 인공지능 특강이 3월 3일(월) 라스베가스장로교회(담임 정공필 목사)에서 열린 강의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기초 및 중급(1)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오후 강의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심화강의가 이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목회와 성경 연구, 상담 및 제자훈련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의되었다. 목회자들은 AI 기술이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실제 사역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꼭 배우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좋은 기회를 얻었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들려주었다. 김병학 목사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을 키우고 독서와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앙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목회와 교회 사역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맞춤형 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복음 전파, 신앙상담 및 훈련 과정의 자동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의 접근법이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의 목회와 선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사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더치브로스의 성공에서 ...

〈1면에서 계속〉 더치브로스의 직원들은 ‘브로이스타(Broista)’라 불리며, 항상 밝고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한다. 단순히 주문을 받고 음료를 건네는 일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교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한 매장 경험을 넘어, 깊은 감동을 주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오리건 주에서 한 여성 고객이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매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준 일이 있었다. 이 모습이 지역 사회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더치브로스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시대, 인간의 관계

팬데믹 이후, 디지털 문화는 더욱 확산되었고 ‘뉴노멀’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대면 접촉보다 디지털 경험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해, 뉴욕대학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그의 저서 불안세대(The Anxious Generation)에서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는 MZ 세대가 오히려 ‘디지털 번아웃(Digital Burnout)’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 알림에 24시간 노출되는 생활이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더치브로스는 MZ 세대에게 ‘인격적인 존중과 환대’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피로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는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회원들이 감사 예배와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 문학 35집 출판감사예배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회장 방동섭 목사)는 ‘크리스천 문학’ 제35집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2월 22일(토) 오후 3시 한마음장로교회(심상래 목사)에서 송종목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김기동 목사(시인)가 기도하고 임영호 목사(시인/소설가)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방동섭 회장의 사회로 계속

된 출판감사예배에서는 수필 부문 신인상을 받은 김은주 씨에 대한 감사패 전달, 송인 부회장의 제35집 출판 보고 및 논평, 정정숙 시인의 축사 등이 있었다. 이어서 김기동 목사, 정지윤 목사, 카라 리 씨의 시 낭송, 신인상을 받은 김은주 수필가의 수필 낭독의 시간이 이어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장소가 더치브로스라는 것이다.

교회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변화가 교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코로나 팬데믹 동안, 많은 한국 교회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 가상 교구, 비대면 주일학교 등의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시점이다.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날로그 존재이며, 인격적인 존중과 따뜻한 환대를 갈망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다. 더치브로스가 단순한 커피 브랜드를 넘어 새로운 ‘환대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듯이, 교회도 MZ 세대나 다른 세대들에게 진정한 관계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요한복음 13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과 환대이다.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다. 이것이 작지만 강한, 소위 강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By 이춘성, TGC

동부교계 게시판

KAPC, 필라델피아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필라델피아노회(회장 최해근 목사)가 3월 11일(화) 오전 10시 시온장로교회(이성흙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 문의: 410-665-6432

헬로쉽교회, 에메트 앙상블 밀알 초청 음악회

헬로쉽교회(담임 김대영 목사)는 3월 15일(토) 오전 11시 본당에서 에메트 앙상블 밀알 초청 음악회를 개최한다.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 문의: 301-444-3100

퀸즈한인교회, 2025년 흥민기 목사 초청 부흥회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3월 7일(금) 오후 8시, 8일(토) 오후 7시, 9일(주일) 1,2,3부 본당에서 흥민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한다. 3월 10일(월) 오전 9시 바울관 2층에서는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672-1150

2025 벨엘 장학생 선발

벨엘교회(담임 백신중 목사)는 고등 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2025-2026 학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은 재정적인 필요, 자기 소개서, 서술형 에세이, 추천서, 학업 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접수마감은 4월 11일 오후 11:59(미국 동부 시간)이고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12학년생, 대학생, 신학대학원생이다. 지원방법,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또는 <https://www.bethelchurch.org/scholarship> 를 클릭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불가한다.

▲ 문의: 벨엘교회 장학위원회(scholarship@bethelchurch.org)

더라이프장로교회 설립 1주년 감사예배

더라이프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는 3월 23일(주일) 오후 5시 설립 1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45-64 166th St., Flushing, NY 11358

▲ 문의: 646-258-4161



주제설교를 해야 한다면

(2면에서 계속)

동시에 너무 많은 구절을 활용하는 경우에, 모든 게 단지 증거 본문 찾기(설교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관 있는 모든 구절을 다 갖다 쓰는 것)로 전락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설교 본문에서 설교의 개요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을 기억하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설교는 목양의 한 형태이다. 당신은 지금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우려를 설교 속에 녹여서 그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평가기준: 거기에 관해서는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주제설교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과정을 만들라. 장로 및 교회 리더십과 함께 주제설교 선택에 필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활동가나 열광자가 항상 원하는 설교주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정은 목사에게 달려있다. 목사는 교인들과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모든 문화적 격변이 다 설교의 주제가 될 필요는 없다. 주제설교는 목자의 가방에 든 독특한 도구이다. 적절하고 능숙하게만 사용하면 교회에 큰 도움을 준다. 한번 시도해 보라.

by Jeremy Jessen, TGC



KAPC 가든노회 제96회 정기노회 참석 후 사진 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 제96회 정기노회 개최

신임회장 이준성 목사, 부회장 김지희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회장 허상회 목사)는 3월 3일(월) 오전 11시 뉴욕양무리장로교회(이준성 목사 시무)에서 제96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노회장 허상회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조성훈 목사의 기도, 김지희 목사의 성경봉독, 이준성 목사의 설교, 성찬예식 후 이원호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준성 목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 (시 119:105-1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원리는 연습시킨 자를 앞세우는 원리이다. 영원하신 기업은 교회라고 하는 이 연습장을 통해서 연습을 잘하고 하늘나라에서 연습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며 "연습시킨 자를 앞세우는 예수님께서 주실 기업을 잊지 말고 달려가며 노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노회장 허상회 목사가 개회 선언 후 절차보고, 임원 선출이 진행됐다. 신임회장 이준성 목사, 부회장 김지희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신규임원 교체 및 휘장을 증정했다. 이후 각부 보고가 이어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뉴저지성도교회 당회장 허상회 목사로부터 박기현씨 목사고시 청원 허락 △박기현씨 목사고시 후 목사안수 청원 허락 △필라델피아장로교회 당회장 이바울 목사 교회가입 청원 허락 △허상회 목사의 부총회장 추천 △가든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회 참석 권고 등이 논의됐다. 모든 순서는 노회장 이준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교사들이 헌신의 찬양을 하고있다. 원내는 세미나를 인도한 류인현 목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교사수련회 및 헌신예배

"주님 앞에서는 결코 '투머치'가 없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3월 2일(주일) 오후 6시 본당에서 류인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사수련회 및 헌신예배를 드렸다.

정대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용준 집사의 기도, 시온찬양대의 찬양, 류인현 목사(뉴프로티어 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류인현 목사는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막 14: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까요?"라고 질문한 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신은 일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양한 이유로 봉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사랑의 향기가 교회와 지역사회, 다음 세대에 퍼져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21세기의 마리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과 합심기도로 이어졌으며, 정훈희 집사(중등부부장)의 인도에 따라 교사선언문 낭독과 헌신찬양 후 난시 추권사의 기도가 있었다.

이종식 담임목사는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주님 앞에서는 결코 '투머치'가 없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뉴욕우리교회, 삼일절 기념예배드려

신앙과 애국을 하나로 여긴 믿음의 선열들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는 3월 2일(주일), 삼일절을 맞이하여 한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 뉴욕우리교회는 그동안 매년 삼일절을 맞아 기념 예배는 물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애국지사 묘소와 위안부 기림비 등을 방문해 온 바 있다.

조원태 목사는 "믿음의 사람들(히브리서 11:32-40)"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목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16인의 인물들을 열거한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와 비견될 만한, 신앙과 애국을 하나로 여긴 믿음의 선열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 독립을 향한 횃불을 들었던 잊혀진 영웅들"이라며 16명의 신앙으로 애국했던 영웅들을 소개했다.

조 목사는 순정도 유관순 길선주 주기철 장준하 이기풍 이승훈 조만식 김교신 김약연 안중근 김구 김마리아 안창호 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 목사임직 박기현 목사와 함께 축하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 박기현 목사 임직식

"천국 문 앞의 걸림돌이 아닌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3월 3일(월) 오후 2시 뉴욕양무리장로교회(이준성 목사 시무)에서 박기현 목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노회장 이준성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이바울 목사의 기도, 박정은 목사의 성경봉독, 조성훈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조성훈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 1: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조성훈 목사는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박기현 전도사님을 부르시고 임직하게 하신 것도 그 뜻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소명임을 기억하며,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또한,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시며, 여호수아 1:5의 약속처럼 늘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홍현숙 기자)

청소년할렐루야대회, 부흥집회 개최 예정

"Shine Like Star"

뉴욕교협청소년센터(AYC, 대표 최호섭 목사)가 오는 3월 28일(금) 오후 7시,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청소년 할렐루야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Shine Like Star"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 14-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이민한인사회 청소년들의 신앙 성장과 영적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집회에서는 찬양팀 Liberatone의 찬양과 리더며교회의 찰스 정(Charles Chung) 목사의 메시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찰스 정 목사는 청소년기



에 많은 시련을 겪으며 신앙을 갖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시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청소년 참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첫날에 비해 둘째날에 참가하는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 이에 AYC는 2025년부터 할렐루야대회의 형식을 변경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흥집회를 계획하고 첫 시도를 한다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우리교회에서 삼일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 | |
|--------------|---|
| 1(토) | 3.1절 기도회 |
| 2(주) 저녁~3(월) | 서울 임마누엘교회(장요한 목사) 010-2393-0616 |
| 새벽,저녁 | |
| 3(월) 저녁 | 안산 큰기쁨교회(김승희 목사) 010-3874-5880 연락 김용희 목사 |
| 4(월) 오전 |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정호 목사) 010-9260-1091 주희 : 지선철 삼일절 구국연합(21:도성회) |
| 6(목) 조찬 | C채널TV 목회자협의회 |
| 7(금) 오전 | 아산서원교회(송창호 목사) 010-8280-6410 CTS TV 부흥합의회 영상기도성회 |
| 8(토) | Blessing Event |
| 9(주) 오후 | Good TV Hold a meeting |
| 10(월) 저녁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여성총재 임은선 목사, 대표회장 김태곤 목사) 청주지역 연합축복 부흥성회 충주새중앙교회(서순란 목사, 문동철 목사) 010-7136-7669 |
| 11(화) 오전 | 전국원로장로회 3.1절 기도대회(류교성 정로) 010-5265-1501 |
| 13(목) 오전 | 김포 은빛교회(정상업 목사) 010-4067-1091 |
| 14(금)~15(토) | 천안 위대한약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
| 17(월)~21(금) |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Asia Region |
| 24(월) 저녁 | 안산 대부도 열림수양관(원장 김우경 목사) 전국목회자영성수련회 010-8898-9141 |
| 25(화) 오전 | 7,000 기도콜럼비아(사)장 권태일 목사,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본부 Building Conference Event |
| 28(금) 오후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중섭) 2025년 정기총회 및 축하공연행사 |

제245차 해외성회 (245th Overseas Assembly)

- | | |
|----------|--|
| 31(월) 오전 | KAL 인천(8:10)-몽골(10:50) |
| 31(월) | 몽골(Mongolia) Ramada by Wyndham Ulaanbaatar City Center |
| 4.1(화) | Elanbat the Capital of Mongolia |
| | 몽골(Mongolia) 몽골원주민 42교회 연합대부흥성회 |
| | 주최 : 기독교인신문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김영현 목사) |
| 2(수) 오전 | 몽골(Mongolia) 몽골한인선교교회(손영목 목사) |
| 2(수) 오후 | 몽골(13시) - 인천(15:10) / 인천(18:35) - 일본 도쿄 나리타(21:05) |
| 2(수) 저녁 |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MIT) |
| 3(목) 낮 |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일본인아와성회(동경 사랑의 교회) |
| | 정소데반 선교사, 김태일 선교사 |
| 4(금) 저녁 |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 심령부흥성회 및 제5기 수료식 |
| 5(토) | 일본(JAPAN) 도쿄 나리타(9:20) - 인천(11:45)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9(모교로)
www.na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세계기도일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기도일 예배 - 쿡아일랜드를 위해 기도

“우리를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역(회장 김민선 집사)이 주최한 2025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시 139:14)’라는 주제로 3월1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는 쿡 아일랜드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최미란 사모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민선 집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가 회장인사말을 전했다며 최미란 사모(벨리대 한노인회)가 여는 기도, 조진숙 권사, 김문주 집사, 김진호 권사가 성경봉독, LA여성선교합창단(지휘 전현미)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지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씨가 대단하다는 말이다.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 중 하나는 자유의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무속신앙이 우리 삶속에 들어와 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게 없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복만 누리기 원하는 속성이 있다. 바알신앙의 무속적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쿡아일랜드를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바란다. 우리를 기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은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 한번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희 사모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유화진 권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황태미 권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시다’라는 제목으로 쿡아일랜드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으며 드림교회 크로마 하프팀의 특별찬양, 이영희 장로, 강정희 장로, 이린애 장로, 장영란 장로, 정의희 권사가 중보기도를 했으며, 신상희 사모(폴터탄한민교회)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석승연 권사(ANC온누리교회) 인도로 함께 기도한 뒤,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지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님세운교회 일일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임은택 목사

주님세운교회 일일부흥회, 강사 임은택 목사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일일부흥회를 2일(주일) 예배시간에 임은택 목사(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 박사원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성규 목사의 사회로 열린 부흥회는 임은택 목사가 ‘하보우만의 축복(시 33:12)’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은택 목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질고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 이 시대는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 애국자가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하며 “애국자는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우리 한민족이 살던 나라는 수천년 동안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였고, 같은 민족인데도 신분제로 인해 고난의 풀무밭 속에 있었던 나라였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자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을 통해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시기 대한민국은 각종 고난을 경험했던 국가였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북한에 뒤쳐져 있어서 북한에 나라를 넘기는 것이 더

나았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세계 최대의 기독교국가로 만드는 뜻이 있으셔서 한국의 공산화를 막으셨다.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던 나라였지만 미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한미방위조약까지 맺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혼란 속에 있다. 사회 곳곳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어서 국가체제가 위기 속에 놓여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던 나라였지만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르네상스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는 축복이 계속될 것을 믿는다.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애국가 4절을 불렀으며 박성규 목사가 나라와 민족, 선교와 열방 교회부흥과 다음세대, 가정과 환우를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부흥회는 임은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

“삼일운동은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외치는 소리”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3월1일(토) 오후 12시 재향군인회 미남서부지회, 예비역 기독교군인회 미남서부지회, 헌팅턴비치한인교회 공동주관으로 헌팅턴비치한인교회(담임 존 김 목사)에서 열렸다. 김현석 목사(예비역 기독교군인회 미남서부지회 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엄제선 장로(OC장로협 증경회장)가 기도했으며, 신용 집사(OC전도회연합회 증경회장) 성경봉독, 소프라노 김민지 씨(헌팅턴비치한인교회)가 특송했다. 이어 이창남 목사(OC교회회장)가 ‘예수를 바라보며(히 12: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창남 목사는 “삼일운동은 비폭력 만세운동이며 전 민족이 참여한 최초운동이다. 삼일운동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 주셨던 모습, 끝까지 사람으로 승리하신 모습과 흡사하다”며 “삼일운동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삼일운동을 이끈 31%, 투옥된 자들 중 25%, 독립선언서를 전국에 배포한 자들, 민족대표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다. 유관순 열사의 경우 일찍이 예수를 믿은 자였다. 그는 만세운동이 있기 전 정동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들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 나오게 되었다. 삼일운동은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외치는 소리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삼일운동이 주도했던 크리스천처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동 목사(OC교회 증경회장) 축도에 이어 오미애 부회장(재향군인회 미남서부 지회) 사회로 열린 2부 기념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 기미독립선언서 전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어 문정주 LA 총영사관 보훈영사가 ‘대한민국 정부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박광정 장로(재향군인회 미남서부 지회 회장)가 ‘삼일절 정신이 파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기념사를, 토마스 리 신부(가든그로브 한인성교회)와 김종대 장로(OC장로협의회장)가 축사했다. 이날 특송은 아리랑 합창단, 늘 노래 합창단이 맡았다. 이날 행사는 이승해 장로(6.25참전용사/재향군인회/예비역기독교군인회 증경회장)가 만세삼창을 인도 한 뒤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행사장 주변을 행진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해산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나성영락교회 창립 52주년을 기념주일예배가 거행됐다

나성영락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예배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예배가 2일(주일) 예배시간에 드려졌다. 계홍규 목사 인도로 오전 9시에 시작된 예배는 권만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박은성 목사가 ‘이욕고 올라갈 집으로(시 23: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은성 목사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읽혀진 인류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이다. 그러나 ‘여호와와 나의 목자’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말씀은 문학적인 평가보다 나의 고백이며 신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감동, 전율, 울림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여호와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고 돌보신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만든다. 그분의 성품에 따라 우리

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52년 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자의 집 나성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 집은 영원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미리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있다”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갈길로 가지만 목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양으로 평생 주님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음으로 충분을 넘어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말씀에 이어 찬양대가 특송을 불렀으며 창립 52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박은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12회 미주청소년 정체성찾기 효글짓기 & 그림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12회 미주청소년 정체성찾기 효글짓기 & 그림공모전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참가부분은 글짓기와 그림이며 참가대상은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이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시상식은 4월26일(토) 오후 2시 로렐장로교회에서 갖는다.
▲ 문의: (714)670-8004, 833-2710

아르모니아 싱어즈 찬양콘서트
아르모니아 싱어즈와 함께하는 새 봄 찬양콘서트가 8일(토) 오후 6시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찬송가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 문의: (323)466-1234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2주년 찬양 콘서트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 창립 52주년 찬양 콘서트가 7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심형진 목사와 스톤게이트가 참여한다.
▲ 문의: (512)454-1727

세미한교회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9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거행한다. 이날 임직식은 3명의 안수집사, 8명의 시무권사, 5명의 허임권사, 4명의 명예권사가 임직된다.
▲ 문의: (972)446-0178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부흥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는 2025 상반기 부흥회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7일(금) 오후 7시30분, 8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9일(주일) 오전 8시, 9시30분, 11시30분이다.
▲ 문의: (858)278-3210



다니엘뉴먼 목사가 주소망교회 부흥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주소망교회 다니엘 뉴먼목사 초청 부흥회

“주안에 살기위해 나 자신은 죽어야”

주소망교회(담임 임금빈 목사)는 부흥사경회를 3월1일(토)과 2일(주일)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임금빈 목사 인도로 오후 12시에 시작된 마지막 날 부흥사경회는 김태석 집사가 기도했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가 ‘주님 안에 강한 우리(엡 6:10-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뉴먼 목사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목자로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알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안에서 살아야 한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님 안에 강한 우리를 이루고, 강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그럴 때 마귀가 던지는 모든 화살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날마다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말씀에 이어 다니엘뉴먼 목사 인도로 합심기도를 한 뒤 임금빈 목사 인도로 찬양을 부른 뒤 다니엘 뉴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알림



오는3월 9일(일) 오전 2시부터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새벽 2시를 3시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제를 넘어 돌봄으로” 40일간 이어질 사랑의 사순절

대한기독교서회 사순절 묵상 주제로 돌봄 강조

극단적 정치 상황과 저출산 및 고독사, 9년 만에 가장 높아진 자살률 등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은 차갑기만 하다. 희망의 언어보다 절망의 신조어가 더 빨리 쏠여가는 시대에 맞이하는 사순절이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여정을 떠올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돌봄 묵상 감사 나눔 등을 강조하며 신앙의 기본을 다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 말씀 묵상과 필사, 릴레이 금식, 탄소 금식 등의 방식으로 사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교회에선 이웃을 향한 돌봄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청주 상당교회(안광복 목사)는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교인들은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주일마다 NGO 후원, 헌혈, 초록가게 물품 기부 등을 각각 실천한다. 절제와 묵상을 겸한 프로젝트도 40일간 진행된다. 성도들은 매일 한 시간씩 에너지와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며, 이 시간을 성경 묵상과 기도로 채운다.

사순절을 감사와 나눔의 계기로 삼는 움직임도 있다. 광주 열린베헤교회(손희선 목사)는 ‘40일 감사일기 캠페인’을 통해 성도들이 매일 감사한 세 가지를 기록하고 공동체와 나눈다.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40일 밤에 뜨는 별’ 기도회도 이어진다. 사순절 기간에 열리는 연합 기도회로 다양한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전한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일 저녁 서울 신촌공유교회에

서 진행된다.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순절 필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교단별로 생태 돌봄을 독려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대한성공회(의장주교 박동신 신부)는 ‘녹색 사순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제안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김정석 목사)도 “탄소 금식은 우리가 지구에 끼친 고통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이끈다”면서 “탄소 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거룩한 습관을 살아가는 영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기감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 김영현 목사)의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서’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 유미호)의 ‘2025년 사순절 탄소 금식 자료’를 교회들에 공유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상규 목사)도 각 교회에 사순절 7주 기간 동안 탄소 금식을 실천하자고 권면했다. 한국교회 원로들은 사순절 경건 생활이 자기 만족이 아닌 수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탄소 줄이고 선교후원하고…햇빛으로 전하는 교계의 사랑

‘태양광발전소 완공 감사예배’ 드려

햇빛 발전소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는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재원을 마련해 농촌교회의 자립을 돕는 선교 모델이 주요 교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4일 충북 충주 총회농촌선교센터(센터장 이원영 목사)에서 ‘예장통합햇빛 태양광발전소 완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는 김영걸 예장통합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단과 전세광 농어촌선교부장, 김순미 전 부총회장, 최영석 영란선교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농촌선교부 주관으로 농촌자립대상교회 활

성화 사업을 공모했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총회농촌선교센터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안했고 지원대상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총회농촌선교센터는 총회 지원금 3000만원을 들여 센터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농어촌교회와 농어촌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을 교육하고, 미자립 농어촌교회에 3kW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2회 설치하는 후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센터장 이원영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전반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예

너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며 “태양광 시설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이 시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목회장 김정석 목사)도 농촌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본부 사업으로 선정된 뒤 지속해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총 1400만원을 투입해 가정용 발전소 2곳, 상업용 발전소 1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감 본부 선교교 사회농어촌환경부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촌교회로 하여금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수익 모델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다. 현재도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며 선정된 교회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서와 발전소 운영 계획서, 설치 공간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승현 사회농어촌환경부장은 “총회에서 배정받은 예산과 농촌지원현금을 합쳐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촌교회가 에너지 자립을 이루면서도 탄소 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선물한 노부부

대한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00부 보내

“감사와 기쁨으로 성경을 받는 탄자니아 사람들을 보며 성경 후원을 결심했다.”

탄자니아성서공회에 스와힐리어 성경 5600부를 기증한 김중근(88) 해성교회 장로가 밝힌 후원 계기다.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김 장로와 아내 민명자(84) 권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성경 기

증식’(사진)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성서공회 문서선교사로 전국 교회를 다니며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알려온 김 장로는 2023년 탄자니아 성경 보급 현장을 방문했다. 외국인인 자신이 전하는 성경을 기쁘게 받는 현지인을 보며 탄자니아 성경 보급을 결심했다. 알프레드 키몽게 탄자니아성서공회 총무는

감사 인사가 담긴 영상에서 “김 장로가 당시 농촌 마을에 전한 성경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큰 은혜가 됐다”며 “이제 타 지역민에게도 성경을 보급한다. 이 성경도 받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탄자니아의 주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다. 다만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 내 교회의 활동이 위축됐다. 목회자의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로 부부가 후원하는 스와힐리어 성경 5600부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장로는 기증 소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라고 밝혔다. 호재민 총무는 “이들 부부가 보낸 성경이 탄자니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희망을 이들이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립운동·신앙 함께 지켜온 140년 선교 역사 담아 공연

창작극 ‘너는 복이 될지라’

꽃재교회(김성복 목사)가 설립 120주년 기념 창작극 ‘너는 복이 될지라’를 선보였다. 성도들이 손수 제작한 공연은 3·1절 이튿날인 2일 서울 성동구 교회 그랜드홀에서 공개됐다. 연극에는 교회를 세운 목회자들과 140여년 전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교인들의 모습도 그렸다.

이번 작품은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과 맞물려 교회의 신앙 유산과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인들이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연기까지 맡았다. 배우 29명과 진행요원 5명 전원이 비전문가

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합숙 훈련을 비롯해 매주 연습을 통해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황정원 성동구립극단 예술단장이 연출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꽃재교회의 옛 이름은 왕십리감리교회다. 왕십리감리교회는 1905년 동대문교회에 출석 하던 일곱 가정의 왕십리 심판서택 사랑방에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참여했고 3·1운동을 함께한 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민족대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필주 목사는 이 교회의 2대, 4대, 10대 담임을 지냈다. 14대 담임 이규갑 목사는 독립운동

에 헌신한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교회는 신앙뿐 아니라 교육과 계몽운동에도 앞장섰으며 아학과 여학교 운영을 통해 문맹 퇴치에 이바지했다. 2011년에는 지역을 넘어선 선교적 비전을 선언하며 꽃재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김성복 목사는 “꽃재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 질곡의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신앙을 함께 지켜온 교회”라며 “오늘 공연은 교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극과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창립120주년준비위원인 윤문근 꽃재교회 장로는 “올해는 한국선교 140주년이자 교회 설립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민족과 함께 걸어온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꽃재교회가 앞으로도 선교와 교육, 사회적 섬김을 실천하며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인 10명 중 2명 “가족·지인 이단에 빠진 적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915명 대상 조사

시작은 사소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했는데 ‘이단 단체’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왔다. 구체적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었지만 교회 내부에서 이단 관련 고민을 가진 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단·사이비 단체로부터 직간접 피해 사례가 있으리라 판단한 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교인 10명 가운데 2명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혹은 본인이 이단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이단·사이비 문제로 혼란에 빠진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회복사역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기도 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곽승현 목사)의 이야기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이단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자 지난달

19일 교인 9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단 단체에 빠진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 교인 2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39%)은 이단 단체의 접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접촉한 단체는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38%)과 통일교, 증산도 등을 포함한 기타 단체(3%)가 뒤를 이었다.

곽승현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단 관련 문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한 고민을 터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시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여러 사유로 이단 단체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

는 가운데 교회는 회복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 이단 상담사를 양육하고 탈퇴자를 환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단의 접근은 비단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목회대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회자 절반 정도(47%)가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회 내 이단의 포교 활동이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단이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목회자들은 ‘교회 가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못 채워 주기 때문’(30%)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교리 교육의 부재’(25%) ‘구원의 확신 결여’(18%) 등을 꼽았다.

바이블백신센터를 이끄는 양형주 대전도안교회 목사는 “많은 교회가 자신들은 이단의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이단을 예방하려면 각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단계를 넘어 잃었던 소를 받아들이는 외양간을 열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면서 “이단 탈퇴자를 품는 포용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 혼란을 해결해주고 정서적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앙을 회복했다. 이씨는 “큰 부담이 없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편안함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주일예만 교회에 나가던 김수연(50)씨에겐 하프타임 직장인예배가 신앙을 이어가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김씨는 “점심시간 드리는 예배는 ‘인공 호흡’ 같은 존재”라며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의 기도와 휴식, 채종전을 위해 공간 자체를 내놓는 교회도 있다. 서울 서초구 킹스채플교회(이광형 목사)는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직장인들의 휴식과 기도 생활을 위해 문을 연다. 이뿐 아니라 낮잠을 잘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꽃꽂이 필라테스 등 강좌도 마련하면서 직장인들을 환대한다.

“신앙의 버팀목… 직장인예배, 인공호흡 같아”

하프타임 직장인예배, 판교 IT밸리

“‘하프타임’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신우회 회원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IT밸리에서 진행된 1516교회(이상준 목사) ‘하프타임 직장인예배’는 이상준 목사의 이 같은 인사로 시작했다. 이날 예배엔 50여명의 직장인이 참석했으며 이와 동시에 서울 서초구 종로구 강서구 등 12개 지역 신우회 회원들이 온

라인으로 참여했다. 교회는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온·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프타임 직장인예배는 오전과 오후 업무 사이의 점심시간을 활용해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이 목사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과를 재충전할 수 있길 바라며 이렇게 이름지었다”며 “코로나 팬데믹 동안 사라진 판교역 인근 회사 신우회를 살리는 한편 ‘가나안 교인’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30분간 이어지는 예배는 실제로 교회를 떠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주천(45)씨는 20년 넘게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하프타임 예배를 통해

mission 선교의 창 (25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워진 곳은 고대 문명이 번성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인류 역사의 여명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제2의 종교인 이슬람교가 바로 이 나라 땅 메카(Mecca)에서 7세기 초에 생겨났다. 무함마드(Muhammad)가 AD 632년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들은 전 세계로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피우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자료에 의하면 무슬림 인구는 향후 20년 동안 약 35% 증가해 2010년 16억 명에서 2030년 2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독교는 정체되어 있는데

퍼볼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이기 때문이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반 현황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에 의하여 국왕직이 세습되는 절대군주국이다. 행정 구역은 리야드(Riyadh)가 수도이며 지방은 크게 하자즈, 네지드, 동부 아라비아, 남부 아라비아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는 중동 및 서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영토는 아라비아 사막이 대부분인 반도로서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다. 면적은

석유 매장량은 세계 2위이고,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국이다. 약 750만 명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국가 GDP의 8%를 군대에 쏟아붓고 있다. 종교 상황은 이슬람교 92.41%, 기독교 5.43%, 힌두교 0.78%, 불교 0.42%, 기타 0.96%이다”(Operation World).

2. 간추린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Wikipedia 자료)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반도는 소수의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막 지대였다. 그러던 중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AD 570년

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후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자 후세인 빈 알리는 헤자즈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였다. 1932년 9월 23일, 헤자즈 왕국과 네지드 왕국은 서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을 건국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6년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석유 생산국이 되었다. 석유를 기반으로 칼리드 국왕의 재위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경험하며 국가의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자체를 재정비하였다. 2017년 들어서는 노획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대신 그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국정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Mr. Everything”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3. 네옴(NEOM)시티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있다. 그 착상은 중동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개발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였다. 네옴(NEOM)은 새로운 의미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접두사 “네오(Néο-)”에다

친환경 직선도시 “더 라인(The line)”이다. 둘째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산업단지 “옥사곤(Oxagon)”이다. 셋째는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Trojena)”이다. 총사업비는 5000억 달러에 이른다. 완공 계획은 2039년까지이다(참고: https://ko.wikipedia.org).

4.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위상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의 기도(salāh)를 해야 한다. 아잔(Azan)은 기도 시보원(時報員)이다. 매일 기도시간 전마다 낭송하는데, 전통적으로 모스크에 있는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 육성으로 외쳤지만 지금은 스피커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아잔은 음악적 운율이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이를 음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틀 때(Sunrise Prayer), 정오(Noon prayer), 오후(Afternoon Prayer)3~4시 사이, 해질 때(Sunset Prayer). 저녁 먹을 때 (Night prayer)이다. 아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라후 아크바르 (4번). 아슈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2번).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2번). 아슈하두 안나 알리안 왈리울라 (2번). 아슈하두 안나 알리안 후자툴라 (4): (알라는 위대하시다. 증언컨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

있는 사우디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맺음말

사도행전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땅끝은 어디인가? 북음화율로 보면 이슬람권이다. 그렇다면 세계 무슬림이 신성시하는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땅끝 중에서도 땅끝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이 사우디가 변혁을 취하고 있다. 이슬람이 시작된 이후 1,400년 만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저들은 영리하다. 언젠가 검은 황금인 석유가 동남아시아로 세계인의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네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명성 있는 축구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스포츠와 문화행사도 과감하게 유치하고 있다. 관광객과 비즈니스 문도 활짝 열려져 가고 있다. 이 무슨 증조인가? 걸 보기는 사람의 계산과 기획이겠지만 영안으로 보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바위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쪼개진다. 사우디가 변한다면 전 이슬람권 역시 종주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우

북음화 비율로 보면 이슬람권이 땅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개방화, 현대화, 세계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되 결코 설치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은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단 양적인 비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응집력이다. 매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이 사우디 메카를 향해 하루 5번씩 절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 광경을 연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에이레의 속담이 있다. 왜 신은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을까? 한 눈은 육안이고 다른 한 눈은 영안이라 했다. 이참에 우리가 그 안목으로 이슬람의 종주국을 살

2,207,651km2으로서 한반도 223,892km²보다 10배 크다. 인구는 2025년 2월 기준34,566,000명이다. 평균 연령은 29.6살이다(Worldometer 자료). 인구 구성은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25살 이하이다. 매우 젊은 국가에 해당된다. 종족으로는 ‘아랍계 80.4%, 아시아계 17.4%, 아프리카계 1.5%, 기타 0.7%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이 나라의 경제는 석유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OPEC 회원국이다. 아랍 국가로는 유일하게 G20 멤버이다.

메카에서 태어났고, 622년에 이슬람교가 시작되었다. 63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은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였다. 현재의 왕실인 사우드 가문은 1744년, 중앙 아라비아의 네지드 지방에서 발흥하였다. 1916년, 메카의 샤리프였던 후세인 빈 알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영국의 도움을 받아 범 아랍적인 반 오스만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통일된 아랍 국가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 명사 무스타크발(Mustaqbal)에서 첫 글자 “M”을 가져와 조합한 합성어이다. 그 의미를 직역하면 “새로운 미래”가 된다. 네옴시티는 홍해 북쪽의 아카바만을 통해 서쪽으로 이집트와 접하고 북쪽으로 요르단과 접한다. 그 규모는 인근 2만6500km² 부지에 서울의 44배 면적 미래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길이 170km, 너비 200m, 높이 500m에 이르는

도다. 증언컨대 무함마드는 그분의 예언자로서. 증언컨대 알리는 신의 대리자로서. 증언컨대 알리는 신의 증인이로다.”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기도를 한다. 그것도 매일 5번씩 해야 하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기도 문화와 생활이 몸에 밴 자는 아마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모든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참배해야 한다. 따라서 성지 메카가

리는 십자군 때의 과오를 기억하며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행여 저 땅에 발을 딛거들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야 한다. 서두르거나 설치하는 것은 급물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가)

38강 요나단, 다윗 (2-1) (사무엘상 21장-사무엘하 4장)

아직은 사울이 왕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다윗을 죽이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드러내며 ‘왕의 수염’을 연단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도 없고 사울에 의해 죽을 수도 없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가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삼상 21:3). 이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시작으로 사울의 딸 미갈과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돕고 다윗을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음식과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삼상 21:4-

9). 그리고 다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족속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이전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기지만 신하들은 아기스에게 다윗을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하며 무리들이 춤을 추며 노래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 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삼상 21:13)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가드 땅에도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다시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있기 위해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삼상 22:1,2). 아둘람 굴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때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모압 땅으로 갑니다(삼상 22:3,4). 그러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유다 땅 헤벳 수풀에 이릅니다(삼상 22:5). 그러자 마침 다윗을 찾고 있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다윗 죽이기를 말하고 있을 때 예돔 사람 도엑이 나섭니다. 도엑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삼상 21:7). 그리고 결국 도엑으로 인해 불려온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에 의해 도엑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삼상 21:9-19).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야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삼상 22:20-23).

다윗이 여호와께 물자와 이 르되

계속되는 다윗의 ‘왕의 수염’입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자와 이르되’(삼상 23:2)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결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임

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위한 간구 이전에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삼상 23:4,10-12).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일라를 구원하고(삼상 23:2-5)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일라를 떠납니다(삼상 23:7-13).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지칠대로 지칠 즈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어떤 현실적인 도움보다 하나님을 함있게 의지하게 하도록 합니다(삼상 23:16).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삼상 23:17)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나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아는 그 믿음대로 다윗을 돕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계

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삼상 23:21)라고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습니다(삼상 23:19-29). 아니 죽지 못합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의 계속되는 ‘다윗 추격전’입니다. 사울은 정말 온 힘과 뜻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어야만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다가 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사울만 죽으면 이미 백성들의 파

음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고 그것조차 마음이 찢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삼상 24:6)고 합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과의 거리가 떨어졌을 때 자신이 한 행동을 밝힙니다(삼상 24:8-16). 이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벼룩을 쫓았을 뿐이다’(삼상 24:14)라고 합니다. 이만큼 다윗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삼상 24:20)라고 합니다. 요나단도 이 사실을 알고 사울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행동은 ‘극과 극’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알고 믿는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왕으로 살고 싶은 그의 욕구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에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주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 (눅 14:26-27) 찬 446장

주님을 모시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다. 주님은 내게 가장 귀한 소중한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자신을 믿지 말라. 자신도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인을 위하여 살라라. 나에게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 한다.

주님과 연합하여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라.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라라. 부정한 자신의 것을 누리지 말라.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된다. 불행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다. 주인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화 주님의 맛이 나는 삶 (눅 14:33-35) 찬 435장

자신의 것을 누리지 말고 주인의 것을 누리고 사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삶을 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헛된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원한 곳에 가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버린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아무데도 쓸 데 없는 존재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내버리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맛이 없는 소금은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 자녀의 맛은 주님이 나타나심이다. 그 맛이 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수 돌아온 탕자 (눅 15:11-18) 찬 91장

탕자는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따라 누렸다. 육신의 것을 믿고 사랑한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죄를 마음껏 즐기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이다. 결과는 불행한 자가 된다. 비로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육신이 사랑하는 것에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 육신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대적임을 나타낸 것이다. 아버지에게

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매임이 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회복이 된다.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난다. 자신의 구원이 아버지인 것을 안다. 아버지의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고 받는 것이다.

목 참된 나의 주인 (눅 16:13-15) 찬 64장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라. 주인이시다. 헛된 수고가 아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지 말라. 그것은 죄가 주는 사상에 빠진 죄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 앞에서 장차 영광을 받게 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산 것이다. 부끄러운 삶이다.

금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눅 17:3-4) 찬 143장

육신에서는 용서함이 나타나지 않고 복수로 나타난다. 그 일로 인하여 나 자신도 죄에 매이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수하고 자 하는 사망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 하신다. 죄는 내게 불행을 주는 것뿐이다. 속지 말고, 사망의 생각을 계속하여 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신 권세를 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사용했다.

요셉이 죄에 매이지 않았다. 죄가 그를 사로잡지 못했다. 왕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라. 용서하지 않게 하는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지 말라. 나의 주인이 주신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을 누리라. 생명을 누리라. 빛을 누리라.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토 치유 받은 나병 환자 (눅 17:11-19) 찬 38장

나병 환자 열 명이 나음을 받았다. 그 일로 인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것이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언급하신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고치신 것임을 알게 하셨다. 자기 몸이 나은 기적보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것이다. 경함한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이다. 그는 하나님께 큰소리로 외치며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아홉 사람은 몸이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살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몸보다 자신이 더 귀한 것이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12)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문서 작성용 AI 도구(AI TOOLS FOR WRITTEN CONTENT)의 활용 (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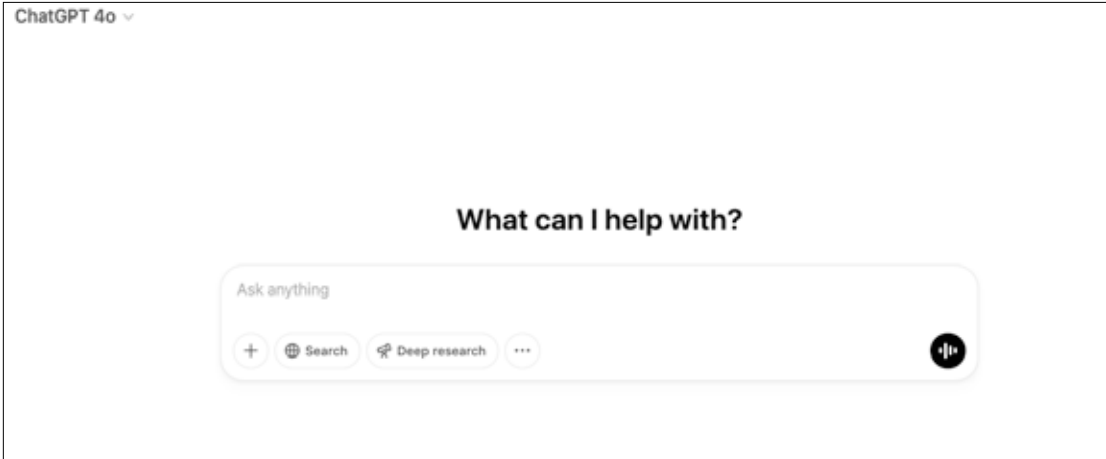


Figure 1. OpenAI사의 ChatGPT

문서 작성용 AI 도구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도구는 OpenAI사의 ChatGPT와 Microsoft 사의 Copilot과 Google의 Gemini이다. 모두가 AI 기반 문서 작성 도구이지만 목적, 기능, 사용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OpenAI사의 ChatGPT는 글쓰기, 요약, 문법 교정, 번역, 대화형 AI 기능을 갖고 있어서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문서 작성을 입력하면 ChatGPT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글자 중심의 문서들을 생성해 준다.

ChatGPT의 기능적 장점으로서는 다양한 지식 제공기능이 있다. 역사, 과학, 기술, 예술, 금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빠른 응답 속도가 장점이다. 비교적 복잡한 질문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ChatGPT는 뛰어난 언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해 주며 다국어 번역이 가능하며,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 ChatGPT를 사용하여 글쓰기, 스크립트 작성, 시나리오 구성, 마케팅 문구 등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디버깅, 알고리즘 설계 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 준다. 이와 함께 ChatGPT는 사용자에게 따른 개인맞춤형 대안을 통해서 요청 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각 사용자의 맞춤형 응답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대화는 각 사용자의 형편과 패턴을 학습하므로 더욱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의 문서를 생성해 준다. 또한, 일정 관리, 이메일 작성,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문서를 ChatGPT를 통해서 생성시킴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많은 장점을 가진 ChatGPT 이지만 기능적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ChatGPT는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다. 즉 최신 뉴스, 실시간 데이터, 동적 웹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검색 사이트 혹은 검색 앱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생성된 문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ChatGPT의 정보는 기존의 자료들에 대한 학습을 통한 데이터 기반을 토대로 생성하므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ChatGPT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 판단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과 관련한 요청에 대해서 판단 부족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이 학습된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학습된 자료가 특정 관점이나 한쪽에 쏠리는 정보를 가지게 되므로 한쪽에 치우치는 편향된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인 혹은 기업, 단체의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보안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ChatGPT를 활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소셜미디어, 에세이, 블로그, 문서, 편지, 번역, 교정 등의 생성형 글쓰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SEO 최적화 및 마케팅 카피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대화형 AI로 질문을 수정하여 재질문을 하는 경우에 따라 생성되어 지는 문서가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ChatGPT는 정보 제공, 창작,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정보 검증과 윤리적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생성된 문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추가 검증을 확인해야 한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벽



벽은 우리에게 주거의 공간을 만들어주기에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가리어 주기도 하기에 없어서 안 되는 고마운 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너'를 단절시키고 대화의 통로를 막아버리기에 불편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지역과 지역을 나누기도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통을 막으니 때로는 없어져야 할 물건이다. 사람들끼리 마음의 벽을 쌓기에 진정한 대화가 상실되고 분리 혹은 대립, 그리고 분쟁의 원인이 된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령한 교통을 끊어버리는 신앙적 장벽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 신앙적인 단절은 말씀의 상실, 은혜의 말살, 성령의 궁핍, 방황하는 영혼의 갈등을 낳는다. 신앙적인 장벽은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아 나를 신앙적 기아로 만든다.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온 한 뇌졸중 환

자가 있었다. 친구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자 했으나 너무나 많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갈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통하는 통로를 상실한 채 밖에서 머뭇거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절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이러한 절망을 극복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후에 병든 친구를 달아 내렸다. 예수님과 병든 자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 성공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뇌졸중 환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 한 마디에 기적이 일어났다. 뇌졸중 환자는 벌떡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경험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와 너’

사이의 장벽을 느낀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언제나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평면적인 사고나 수평적인 만남은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에 불가능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망한다. 그러나 수직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는 장벽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옆으로의 좌우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인 기도의 시도는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한다. 파격적으로 지붕을 뜯어낸 그들의 방법은 주님과 나를 수직적으로 만나게 하는 기도의 행위이다.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편협한 이해의 수평적인 만남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의 수직적인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고 진정한 관계의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만끽하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막 2:4)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고요히 차를 담고 있는 찻잔을 보면서

하루에 커피를 조금씩 세잔 여유있게 마시는 삶은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하루의 시작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포르테처럼 힘찬 기쁨을 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는 메소피야나 같은 차분함을 안겨주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마시는 커피는 피아나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대중 커피를 마시던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를 섬긴 목사님이 갓 볶은 커피빈이라고 들고 와서 한잔 대접하겠다고 할 때였습니다. 모래 시계를 옆에 놓고 손을 움직여 일정한 속도로 커피빈을 가는 목사님의 모습이 엄숙한 의식을 치루는 사람의 자세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정성에 그냥 송충처럼 마신다면 도저히 예의가 아닐 것 같아 저도 제법 정성을 들여 심호흡 크게 하고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 맛이 온몸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커피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가장 멋진 맛을 선물하는 요정과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는 신 맛, 스위트한 맛, 깔끔한 맛, 약간 짠 맛, 고소한 맛 등 커피는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커피빈을 갈아 정성을 담아 내린 첫 잔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 줄 정도의 만족한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며 하루에 몇 잔을 마시던 제가 어느 순간 커피잔을 놓아두고 참 고마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갑자기 커피가 아닌 커피잔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신 안에 커피를 담고 때

로는 뜨거움도 참아내고 때로는 식어가는 온기도 인내하며 너무나 고요하게 커피를 담고 있는 찻 잔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고마움의 인사는 조금도 받지 못한 채 묵묵하게 커피를 담고 있는 찻잔, 그 찻잔의 인내와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고마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일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무게를 이겨내며 자신을 감아가며 달리는 자동차 네 바퀴나, 하루종일 앓은 무게를 지탱하는 의자의 다리는 얼마나 소중한지요. 엑스트라 같은 존재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또 얼마나 고귀한지요. 어두운 예배당 구석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지요. 세상은 이런 소중한 사람과 평범해 보이지만 가치있는 일상의 사물로 인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없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preachchrist@kcpc.org

베드로 진서 40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감사의 감사 기도

오래된 이야기다.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자주 웃음이 나온다. 나를 포함하여 뉴욕의 몇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식사하려 했더니 당시로

는 젊은 목사께서 자신이 저녁을 내겠다고 하셔서 모두 함께 식당으로 갔었다. 음식이 나오

자 모두들 주춤했다. 누가 기도할 것인가 하고 서로 둘러보았기 때문이다.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들이 계시 때는 서로 미루고 당신이 하시라 어른이 하시라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접하시겠다고 한 그 젊은 목사가 불쑥 자신이 대접을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경우도 드문데 목사님의 기도 역시 대단했다.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전부였다. 마주 보면서 웃었다. 대접하시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한 그 기도에도 너무 간단하고 그러나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음식이 앞에 있으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누가 뭐라 말할 것인가. 글자수로 21자에 불과하지만,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짧은 기도였고 그러나 하실 기도 하실 감사가 다 들어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기도였다. 오늘의 기도를 장황하고 군더더기가 많이 들어간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아닐까?

revpeterk@hotmail.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논문제목: 엔데믹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 설교본문(하나 텍스트):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 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이력서(약력과 자제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속소를 예약할 것.
-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통진 목사